

자료제공 : 2022. 12. 15.(목)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

도로관리과장	이정화	2133-8150
도로관리팀장	윤인식	2133-8152
담 당 자	양재신	2133-8160
	손창수	2133-8155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2매

서울시 전역 오후 5시 대설주의보 해제

- 서울시 대설주의보 해제, 15일(목) 적설량 4.5cm
- 인력 8,484명, 장비 1,123대 동원, 제설제 3,903톤 투입 제설총력 대응
- 보도, 이면도로 등 제설취약 지역 제설작업 계속, 오늘밤 기온 영하권으로 결빙주의 당부

- 서울시 전역에 발령되었던 대설주의보는 강설이 종료됨에 따라 오후 5시에 해제되었으며, 이번 강설로 인해 서울에 4.5cm의 눈이 내렸다.
- 서울시는 이번에 제설2단계 비상체제로 인력 8,484명, 장비 1,123대를 동원, 제설제 3,903톤을 투입하였으며, 대설주의보는 해제되었으나 저녁에 기온이 영하권임에 따라 결빙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차도의 잔설제거 작업 및 보도,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.
- 제설로 인한 교통 통제구간은 발생하지 않았으며, 서울시는 퇴근시간 혼잡을 방지하고자, 대중교통 집중배차시간을 30분 연장 운행한다.
 - 퇴근 집중배차시간 : (평소) 18시~20시 (연장) 18시~20시 30분

-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“강설은 종료되었으나 아직 보도나 이면도로에는 눈이 남아있어 제설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오늘밤 영하권 추운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결빙대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에 있다” 며 “시민들께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퇴근길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리며, 미끄러짐 낙상 등에 주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” 고 말했다.